

# 전남도, 국내 첫 '친환경 부표' 개발...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바다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 해안 플라스틱 쓰레기 55% 차지 (썬이폴리텍·SL해원 제작 맡아 내년 인증 취득 후 대량 양산 돌입)



전남도가 지원해 국내 첫 개발한 '생분해성 친환경 부표'

해양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친환경 부표'가 전남도 지원으로 국내에서 처음 개발돼 제품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와 완도지역 소재 기업이 국내 최초로 '생분해성 친환경 해양 부표'를 개발함으로써 해양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전남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바다 양식장에는 스티로폼으로 불리는 하얀색 발포 폴리스타이렌(EPS)으로 만든 부표가 널리 사용되면서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해안에서 관측되

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55% 상당이 스티로폼 부표로 조사되기도 했다. 문제는 해당 부표의 경우 자연분해가 잘 되지 않고 분해 과정 중 대량의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한다는 데 있다. 이에 전남도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를 적용한 어업용 친환경 부표 기술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여수 소재 썬이폴리텍과 완도 소재

SL해원이 부표 제작을 맡고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이 기술 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11월 생분해성 해양 부표 연구개발에 착수해 양산형 제품 개발을 마쳤다.

또 지난 9월까지 6개월 동안 완도지역 어촌계의 협조로 다시마 양식장 4곳에서 현장 실증을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 해수부에 친환경부표 정식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취득하면 대량 양산체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실증을 확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로도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해양 부표뿐 아니라 다양한 해양 기자재 제조기업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적용토록 지원하는 '해양 생분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생분해부표 국내 첫 개발로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과 해양쓰레기 오염 문제 해결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며 "전남이 화이트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더 노력하고, 화이트바이오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함안군 강소농대전 '최우수 기관' 선정

경남 함안군은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주관한 2023년 강소농대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강소농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을 통한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 등 농가경영개선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경진대회이다.

군은 강소농 육성을 위해 2011년부터 경영개선교육과 자율모임체 육성, 소득향상을 위한 컨설팅 등을 꾸준히 진행하며 503명의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다. /함안(경남)=이도성 기자

### 고창군 용평리조트와 테마파크 조성

고창군이 ㈜HJ매그놀리아 용평호텔리조트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용평리조트와 양자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 7월에는 전라북도까지 포함 3자 MOU를 통해 용평리조트의 민간투자(3500억원)와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이라는 협조관계를 공고히 다져왔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역할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현실화했다. /고창(전남)=양수영 기자

### 부산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 추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7일까지 '2023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부산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선진화된 경영 시스템과 기업 문화로 지역경제를 선도한 부산의 우수 중소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후보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공고일(3일) 현재 부산지역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상시종사원 10명 이상, 업력(業歷) 3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이다. /부산=장병호 기자

### 경북도 국비캠프, 국비 확보 총력전

경북도는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연석 국회의원의실(국민의힘, 김천)에서 국비확보 캠프 현판식을 열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비캠프는 정부예산안이 의결되는 오는 12월 2일까지 지역 주요 현안 사업예산 증액을 위해 도와 시군, 국회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며 상임위 및 예결위 부별 심사, 종합정책질의 등을 함께 소화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구조 등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보다 180억원 증액된 4조 4540억원을 반영시켰다.

이번 국회 예산심의에서 총 104건 5718억원의 사업예산이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 울주군, 美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수출 상담 33건·573만弗 성과

지역 中企 美 진출 기회 제공 실리콘밸리 벤치마킹 진행

울산 울주군이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지역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수출 상담 33건, 상담금액 573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은 지역 중소기업에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실리콘밸리의 최신 산업 기술 동향에 대한 벤치마킹을 진행하고자 파견됐다. 개척단에는 지역 수출 기업 7개사 외 울주군, 한국무역협회 울산 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

지난달 31일 북미 서부 시장 진출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난 1일과 3일,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 상담회에서는 총 33건, 573만 달러 상당의

상담이 진행돼 추후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척단은 실리콘밸리 세계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플러그 앤드 플레이'와 AI 기반 CRM 솔루션 기업인 '세일즈포스'를 방문해 미래 산업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혁신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울주군은 해외 시장 현지 파견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올해 말까지 '울주군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을 운영, 온라인 참여 기업 5개사를 포함한 총 12개사의 주요 제품을 홍보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꾸준히 이어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고환율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과를 내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울주(울산)=이도성 기자 metrobusan@



진도군 관내 유관기관들과 씨월드고속웨리 지역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식. /진도군

## 진도군, 지역 일자리 창출·인재 채용 '박차'

관내 3개 기관과 협약

진도군이 관내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진도군-씨월드고속웨리(주)-진도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이 ▲전문 인재 양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 인재 채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이종훈 씨월드고속웨리(주) 대표이사, 오미선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진도 출신 청년 취업을 위해 지역 인재 채용 정보·방안 공유와 양질의 일자리 조성에도 함께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씨월드고속웨리(주)는 지난 3월 진도항과 제주 애월항을 잇는 항로 개설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신규카페리 취항을 앞두고 있다.

신규카페리는 승객 600명과 화물차 40대, 승용차 100대를 실을 수 있는 대형 여객선으로 취항에 따른 현장 인력 등 대규모 채용이 예상된다.

또 씨월드고속웨리(주)는 지난해 진도-제주 구간 쾌속카페리 취항에 따라 진도 출신 인재 4명을 채용,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기업에는 맞춤형 우수 인재를, 청년에게는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관들과 협력체를 유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경남도, 소 렘피스킨병 조기 백신접종

오는 8일까지 마칠 계획

경상남도는 소 렘피스킨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백신접종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8일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의 렘피스킨병 백신 접종 대상은 10,580농가의 소 35만 6천두로 지난 1일 새벽 백신공급을 마친 뒤 순조롭게 백신접종이 진행중이며, 2일 기준 백신접종률은 29.3%로 10만 4천두가 접종을 마쳤다. 렘피스킨병 백신은 피하접종용으로 전문인력을 통한 정확한 접종이 요구되며, 백신 접종이 완료되더라도 충분한 방역력 확보까지 3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

에 신속한 백신접종이 우선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 방역당국은 소규모 농가뿐만 아니라 고령, 여성 등 접종에 어려움을 겪는 전업농가까지 접종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접종 지원을 받는 두수는 접종대상의 73%정도인 25만 9천두 가량으로 기존 12만 2천두에서 2.1배 확대하였다. 또한, 지역축협, 방역지원본부 등 전문 보정인력을 당초 341명에서 396명으로 55명 추가 투입, 접종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당초 접종완료 목표인 11월 10일보다 2일 앞당긴 8일까지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경남=장병호 기자 metrobusan1@

## 경북도, '새마을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지방시대 선도 발판 마련

경북도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새롭게 이어 나가 지방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다시! 함께! 새마을!'을 주제로 지난 3~4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2023 새마을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 첫 개최된 새마을 페스티벌은 새마을운동의 중심지였던 경북을 위기에서 기회로 탈바꿈하고, 다음 세

대가 선도적으로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한 축제다. 특히, 기성세대가 어린이들에게 새마을 후드티를 입혀줌으로써 새마을정신 계승과 세대 간 화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는 스티라카마힌다야 파아베와르다나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해외 내빈들이 참석해 국제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